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6월 19일(주일) 제1398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6월 22~24일 마리아행전 ... 22~23일 각 캠퍼스, 24일 서빙고 본당
22일 이규현 목사, 23일 정근두 목사, 24일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드디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6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6월 22일과 23일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집회가 진행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6월 24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다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에서는 22일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3일 정근두 목사(에스라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24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

교한다.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참가자들은 밝은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등록 확인을 할 수 있고, 9시 30분부터 본당에 입장할 수 있다. 교회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교회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참가자들에게 기도책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31일 시편기도>를 나눠준다. 31일 동안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과 가족,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육, 가정, 교

회, 사회, 정치경제, 문화, 북한, 다음세대에 대한 기도정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2 차세대 어드벤처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마태복음 말씀을 주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2022 차세대 어드벤처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꿈아이(영유아부, 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소년부)과 과워웨이브(중고등부)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에서 한다.

올해 차세대 어드벤처에서는 예음 ‘뽀뽀뽀, 소금 되신 예수님’, ‘반짝반짝, 빛 되신 예수님’, ‘으쌔 으쌔, 섬김의 예수님’을 주제로 놀이매트, 카드놀이 등을 한다. 꿈땅(유년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퀴즈, 카드놀이 등을 한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공동체별로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6월 18일(토) OCC, 서빙고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8일 강촌, 강서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올해 상반기 온누리공동체는 1월 선교헌금 작성행사, 2월 목회사관학교, 3월 순장영성수련회, 4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5월 부모초청 맞춤형도전회 ‘행복드림 콘서트’ 등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노력했다. 6월 22~24일에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열린다.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18일(토)	OCC	동빙고근린공원&비전홀	18:00
6월 18일(토)	서빙고	외부	10:00
6월 21일(화)	한강	두란노홀	18:00
6월 21일(화)	중창로	한동홀	18:00
6월 24일(금)	관악금천	줌(zoom)	20:00
6월 24일(금)	서대문	줌(zoom)	20:00
6월 24일(금)	동대문중앙	줌(zoom)	20:00
6월 25일(토)	여의도	외부	17:00
6월 25일(토)	고양은평	한동홀	16:00
6월 25일(토)	노원	Seekers Church	11:00
6월 25일(토)	일산	일산비전센터	16:00
6월 25일(토)	동작	양지	11:00
6월 28일(화)	마포	두란노홀	18:00
6월 28일(화)	이수	비전홀	18:00
6월 28일(화)	가정사역	한동홀	18:00
6월 29일(수)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20:00
6월 29일(수)	이촌	두란노홀	19:30
7월 1일(금)	성동광진	줌(zoom)	20:00
7월 1일(금)	용산	줌(zoom)	20:00
7월 1일(금)	양천	줌(zoom)	20:00
7월 2일(토)	광명	외부	19:00
7월 2일(토)	신용산	비전홀	15:30
7월 2일(토)	김포	비전홀	14:00
7월 5일(화)	찬양사역	시온홀	18:00
7월 6일(수)	성북	줌(zoom)	20:00
7월 7일(목)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7월 8일(금)	강촌	시온홀	18:00
7월 8일(금)	강서	한동홀	18:00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21일(화)	강남B	화평홀	20:00
6월 21일(화)	강남C	온유홀	20:00
6월 22일(수)	서초A	드림홀	19:30
6월 22일(수)	송파B	화평홀	20:00
6월 23일(목)	강남A	줌(zoom)	20:00
6월 23일(목)	강남E	온유홀	19:30
6월 23일(목)	분당A	화평홀	19:30
6월 24일(금)	경기A	줌(zoom)	20:00
6월 24일(금)	과천의왕	줌(zoom)	20:00
6월 24일(금)	송파A	줌(zoom)	19:30
6월 24일(금)	양재B	줌(zoom)	20:00
6월 25일(토)	강남D	드림홀, 줌(zoom)	20:00
6월 25일(토)	서초D	줌(zoom)	20:00
6월 26일(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15:30
6월 26일(주일)	하모니	줌(zoom)	20:00
6월 28일(화)	서초B	화평홀	20:00
6월 29일(수)	양재A	화평홀	20:00
6월 30일(목)	서초C	드림홀	20:00
7월 1일(금)	도곡	줌(zoom)	20:00
7월 1일(금)	분당B	줌(zoom)	20:00
7월 1일(금)	Point5	줌(zoom)	20:00
방학 없음	Bridge33+	-	-

캠퍼스			
날짜	부전	경천홀	시간
6월 19일(주일)	부전 회락	경천홀	17:00
6월 24일(금)	부전 믿음	외부	19:00
6월 25일(토)	부전 소망	비전홀	17:00
6월 26일(주일)	부전 사랑	기쁨홀	13:00
7월 3일(주일)	부전 화평	비전홀	16:00
6월 28일(화)	수원 북누리	본당	20:00
6월 30일(목)	수원 동누리	본당	20:00
7월 1일(금)	수원 남누리	본당	20:00
7월 5일(화)	수원 서누리	본당	20:00
6월 24일(금)	대전 동누리	본당	19:30
6월 24일(금)	대전 서누리	비전홀	19:30
6월 24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408호	19:30
7월 1일(금)	대전 남누리	본당	19:30
7월 2일(토)	남양주 연합	수동수양관	10:30
6월 26일(주일)	평택 연합	본당	16:00
6월 24일(금)	인천 서누리	본당	19:00
6월 26일(주일)	인천 북누리	소망홀	16:00
7월 2일(토)	인천 남누리	양지비전빌리지	12:00
7월 2일(토)	인천 동누리	본당	16:00
6월 23일(목)	강동 동서울A	본당	20:00
6월 24일(금)	강동 동서울B	본당	20:00
7월 1일(금)	강동 동서울C	본당	20:00
7월 1일(금)	양지 서누리	줌(zoom)	20:00
7월 1일(금)	양지 동누리	줌(zoom)	20:00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6월 30일~7월 2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7월 3일 장충체육관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이하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6월 30일(목)부터 7월 3일(일)까지 이어진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7월 3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집회가 막 오른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벌써 청년 4,036명이 신청했다(6월 15일 기준). 4,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참가신청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전자주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에는 ‘출석 교회 및 공동체,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 땅의 예배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소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부흥(復興)’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는 뜻이다. 우리는 심령의 부흥,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사모한다. 부흥을 주제로 한 찬양을 즐겨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다.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다. 이 찬양은 내레이션을 시작한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내레이션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부흥’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개념일까?

하박국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BC 612~605년이 배경이다.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고, 온갖 불의가 판치며,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

었다. 이뿐만 아니라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이었다. 하박국은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과 두 차례 질문을 주고받는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악함 때문에 그 역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 그리고 찬양한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문이다. 여기서 ‘주의 일’은 심판의 역사를 말한다. 선민(選民)일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다. 바벨론조차 그들의 포악함과 강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유다와 바벨론 모두를

심판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는 그 일을 즉시 행해달라는 의미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표준새번역에서는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말성경에서는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번역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나타난 ‘부흥’의 의미는 단순히 모든 일이 잘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뜻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에서 부흥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심판의

행위를 이루어 달라라는 의미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행위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박국 3장 2절의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달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문자적인 ‘부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삶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에스더 8:1~10:3; 시편 22:1~31

목상 포인트
1: 대적은 죽었지만, 해결할 문제는 남아 있다. 페르

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 없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명해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살펴보고, 성도가 행할 최선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자.

하만이 죽은 이후 왕은 하만의 모든 소유를 에스더에게 넘겨준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지위에 오른다. 대적은 제거되었지만,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명하기 위해 다시 왕 앞에 엎드린다. 왕은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기에 방법을 고안해서 조서를 기록하고 반포한다고 한다. 이에 모르드개는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날 유대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쓴다. 이 조서는 유대인의 방어권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한 자들에 대한 선전 포고다. 아달월(유대력 열두 번째 달) 13일, 유대인이 대적과 맞서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친히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에스더는 이튿날 14일에도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이 조서대로 행할 것과 하만의 아들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것을 왕에게 요청한다. 이로써 오래전 사울 왕이 완성하지 못한 ‘아말렉 족속 진멸’(삼상 15:3~9)이 이방 땅에서 에스더를 통해 이루어진다.

목상 포인트2: 부림절은 유대인의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다. ‘에스더의 용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은 이날을 절기로 지킨다. 성도가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부림절 제정을 통해 묵상해 보자.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념하는 잔치를 연다. 지방에서는 전쟁 다음 날인 14일에, 이틀간 전쟁을 치른 수산성에서는 15일에 잔치를 연다. 모르드개는 14일과 15일을 정기적인 명절로 제정한다. 이날에 승리를 자축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고 명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쁜 날’(9:22; 시 30:11)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성도가 기억할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목상 포인트3: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나온다. 조롱, 비방, 멸시, 천대, 저주 등 시편 기자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극심한 고난의 때에 마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시편 22편에서 찾아보자.

시편 22편 첫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를 연상시킨다. 시편 기자는 밤낮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를 벌레 취급한다.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 그를 에워싸고 손발을 찌른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진토에 버려두신 것만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모두 듣고 계셨고, 그에게 응답하셨다. 전반부는 고난에 대한 탄원으로 어둡지만, 후반부는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밝아진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거나 대적을 사라지게 하는 대신 스스로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 온전한 구원(회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천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찾지만 하면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지키신다. 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조롱, 비방, 멸시, 천대, 저주로 괴로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 생명의삶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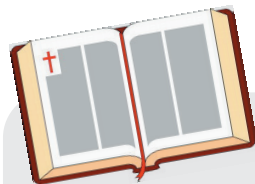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여름이와 봄이를 위해서!

한여름, 한봄 엄마입니다. 큰딸 여름이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이는 골격형성 장애 및 여러 장기의 발육 부전이 특징인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이는 근육과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6살인데 막 돌 된 아이처럼 왜소합니다. 뼈와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흉곽이 약하고, 기도가 좁고, 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서 목에 관을 삽입하고, 기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혼자 목을 가누지도, 앉아 있지도 못해서 누워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음식을 혼자 먹고 소화할 수 없어서 배에 위루관을 삽입해 우유를 줍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던 여름이가 2년 전 왼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야 가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름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이어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름이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름이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름이 몸의 뼈와 근육들이 건강해져서 혼자 목도 가누고,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계 없이도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잘 먹고, 잘 자고, 배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동생 봄이가 아픈 언니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름이를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서로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류은석 성도(서빙고 영아2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2:1~11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음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악의 공장처럼 온갖 죄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순간순간 심판하심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가 최악의 결과를 겪으며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의 한 표현입니다.

명백하게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죄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비난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사회의 기준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도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2장에서 어법을 바꿉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논술형으로 설명했는데, 2장에서는 헬라 시대 전통적인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가상 인물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통렬하게 털어놓는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이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타인의 죄와 문제를 판단하지만,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판단하려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외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분을 내지만, 자신의 그런 행동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로움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 시대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이를 꼽으라면 선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로 욥이 ‘자신의 모든 의가 도금된 것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밑바닥에 있었던 불의함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욥의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을 휘젓기 시작하면 엄청난 불의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욥이 그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없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의로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서 더러운 옷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판단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진리대로 이뤄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3-5절).

온갖 흉악한 죄들, 우상숭배, 더러운 마음, 타락한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기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2절).

진리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진리입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요즘은 “당신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사상이자 사고방식입니다. 진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를 양분화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진리가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앙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잘못된 구분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리란 절대 기준이며,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

나님의 심판은 절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절대적인 의로움과 선함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모두 죄악 된 상태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 질서에도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증명된 과학적 진리가 있듯이, 모든 세상에도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진리대로 이루어지기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행한대로 이뤄지는 하나님의 심판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6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9-10절).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했던 모든 기준을 스스로 지켰는가를 물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녹음하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의 때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틀어 네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심판하신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계 20:12).

하나님의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르는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면...”

아랍어예배 20여 년 섬긴 박미애 전도사와 봉사자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멋진 삶도 없다. 주목받고, 반짝이지 않는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말이다. 여기, 언젠가는 복음이 꽃 필 거라는 믿음 하나로 20여 년 동안 아랍어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박미애 전도사와 봉사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묵묵히 아랍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성실함과 헌신이 아랍에서 온 이주민들을 변화시켰고, 아랍을 복음화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새기게 했다.

관심이 많은 예배와 사역이 있다. 관심이 많은 예배와 사역에는 봉사자가 끊이지 않는다. 반면 성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관심이 적은 예배와 사역도 있다. 관심이 적은 예배와 사역을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개척교회로 하는 심정으로 일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예배와 사역과 관심이 적은 예배와 사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두 소중하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관심이 적은 예배와 사역을 오랜 시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꽤 고된 일이다.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끔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예배를 섬겨야 할까’ 실의에 빠지기도 한다.

박미애 전도사와 봉사자들은 정말 특별하다. 성도들의 관심이 적은 서빙고아랍어예배를 20여 년 동안 묵묵히 섬기고 있다. 박미애 전도사와 봉사자들에게 ‘20년 외길 무슬림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단한 비결이나 영화 같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고백했다. 그 답답한 고백에 그 어떤 간증보다 큰 감동이 있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새내기, 하나님과 아랍에 빠지다

박미애 전도사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무슬림은커녕 하나님도 몰랐다. 그녀에게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새내기 대학생은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다.

“UBF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 기도 모임에서 아랍인들을 위한 기도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 UBF에서 계속 훈련받았는데 졸업할 즈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UBF 훈련이 어려웠고 졸업과 함께 UBF를 떠나면서 도교



아랍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미애 전도사.

하는 마음으로 모로코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로코 유학을 반대했었습니다.”

박미애 전도사는 모로코에 있는 리바트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이어갔다. 리바트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자매를 알고 지내며 교회를 알게 됐다. 현지인들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현지인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박미애 전도사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성숙해가면서도 때로는 사역에 대한 부족함도 느꼈다. 하나님이 그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유학 가는 길에 파리 공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이랑 경비 조금 빼고 전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던 유학이라 사정을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학업도 어려운 광야를 걷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아랍어와 문화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변증을 해야 했고, 저의 신앙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랍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에서 시작된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

박미애 전도사는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하루는 온누리교회 이란예배에 참석하던 한 성도가 ‘아랍어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모임’을 한다면서 박미애 전도사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2002년 3월 아랍어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모임이 시작됐다. 그 기도모임이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의 시초다. 성도 서너 명이 모여 매주 아랍 선교와 아랍어예배를 위해 기도했고, 이라크 쿠르드족 형제 두 명이 함께 하면서 아랍어예배로 발전했다.

“이라크 쿠르드족 형제 한 명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아랍어예배의 몇 안 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를 폴 이사 목사님, 야호야 목사님, 빼에르 전도사님, 말라쓰 전도사님, 바샤르 전도사님, 히바 전도사님 등이 섬기셨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파트 전도사로 아랍어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박미애 전도사와 아랍어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처음 같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와 성과가 없어도 아랍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아랍어예배를 섬기는 봉사자 중에는 아랍 관련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정말 아랍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의 마음이 정말 귀합니

다. 봉사자들이 적어서 아랍어예배가 매우 조촐합니다. 그래서 봉사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영웅들

인터뷰 내내 소탈하게 웃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고백하던 박미애 전도사와 아랍어예배 봉사자들에게도 숱한 좌절과 고난이 있었다. 아랍어예배를 찾아오는 아랍인들이 나누는 고민 대부분을 도와줄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다. 비자 문제, 가족 문제 등이 그들의 고민인데 이야기 들어 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고, 도와주면 안 되는 일들도 많다. 굶주린 어려움을 쏘아내고 사라지는 아랍인들을 20여 년이나 섬겼는데 그들을 떠올리면 미안하기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다.

“아랍인들을 더 잘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돕는 게 맞는지 몰라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 아랍어예배를 20여 년 섬겼는데 아직도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부담도 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큰 열매가 없는 예배를 20년 넘게 지원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면 새 힘이 솟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한숨 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아랍이 복음화되는 그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랍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미애 전도사와 대화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말이다. 그들에게서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을 또 하나를 발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아랍어예배
주일 오후 2시
서빙고 신관 B012 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청소년 보호, 복지, 교육, 자립 돕는 '온누리청소년센터'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에는 반반 선택지가 없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선택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면에서는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와 사역팀을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이 온누리청소년센터의 교육과 돌봄, 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의 보호, 복지, 교육, 자립을 돕는 하나님의 기관이 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온누리청소년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다.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하나로꿈학교(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19~24세 청소년 자립지원 기관),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집지역아동센터(지역 아동 대상 방과후공부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들의 보호와 복지, 교육과 자립 지원 등의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돌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지민, 조성현 씨에게 온누리청소년센터란?

정지민 씨(22살)에게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다. 그는 현재 잠시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몸을 위탁하고 있다. 군대 가려고 자취방을 내렸는데 문제가 생겼다. 군대 가기 전까지 있을 곳이 사라져 버렸다. 오갈 데 없어서 곤란한 정지민 씨가 도움을 요청한 이는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이었다. “당분간 지낼 곳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었는데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군대 갈 때까지 쉼터에서 지내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정지민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쉼터에서 생활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폭력과 강압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많이 맞고 자랐습니

다. 어느 날 아버지께 맞고 울고 있는 저를 학교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제 사정을 들은 선생님이 저를 수원에 있는 청소년 단기 쉼터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았다. 때리는 사람도 없고, 공부하라고 욕박지르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또래들이 쉼터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러나 단기 쉼터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로 이관됐다. 정지민 씨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난생처음 용돈이란 걸 받았다.

“아버지께 용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기 쉼터에서도 용돈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왔더니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용돈으로 필요한 것도 사고, 친구들과하고 군것질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삼시 세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었다.

“아버지랑 살 때는 라면이랑 햄이 제가 먹을 수 있는 요리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주는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삼시 세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지민 씨가 누구보다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다.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들이 고민을 잘 들어주고,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로잡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온누리교회 집사님과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얻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성현 군(19세, 고2)은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꿈을 찾았다. 그의 꿈은 제과제빵사가 되는 것이다.

조성현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왔다. 조성현 군이 부모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다. 아버지와 누나랑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집도, 생활도 불안정해서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었다. 결석이 길어졌더니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연락했다. 그렇게 단기 쉼터를 거쳐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들어오게 됐다. 조성현 군도 정지민 씨처럼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 오기 전에는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한테 냄새난다고 따돌림도 당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청소년센터에 왔더니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잘해주시니까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더라고요.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조성현 군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 학생 회장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 되었다. 무엇보다 조성현 군은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진로와 꿈을 찾았다.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더니 온누리청소년센터 선생님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자기 일처럼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습니다. 자격증 시험 비용도 대신 내주셨고, 바리스타 실습도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조성현 군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저는 온누리청소년센터의 보살핌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따뜻한 어른이 단 1명만 있었어도...

김주성 집사(송파B공동체, 양재이웃사랑팀)는 2014년부터 온누리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다. 김 집사는 온누리청소년센터에 처음 왔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당시 쉼터에서 지내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학생 눈빛이 어찌나 살벌한지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으면 저렇게 살벌한 눈빛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김 집사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주 찾아갔다.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면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센터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용돈, 학원비, 필요한 옷도 선물했다. 센터 지원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살피고 도왔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김 집사의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은 온누리청소년센터 청소년들과 거리낌 없이 안부 묻고 대화하는 사이가 됐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지내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어른이 단 1명만 있었어도 그 아이들이 가정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의: 031-399-7997

명화로 읽는 성경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늘 깨어 있으라!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눅 6:39).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림을 훌륭하게 그려낸 이가 있다. ‘소경의 비유’ (1568년)를 그린 피테르 브뤼겔이 그 주인공이다. 그의 그림은 6명의 시각장애인인 이들과 함께 지팡이에 의지해 길을 걷다가 어떤 이는 휘청거리고, 어떤 이는 넘어지는 모습을 풍속화처럼 재치있게 잘 그려냈다. 이 비유에서 눈먼 사람은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온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일 것이다. 삼손은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팔아넘기고, 삼손은 그들에 의해 눈이 뽑혀 시각장애인이 된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돌이킨 삼손의 마음을 보셨다. 그에게 다시 옛날의 힘을 돌려준다. 육체적 시력이 살아있다고 영적인 시력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사 44:18).

마음이 깨어 있으면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고, 마음이 깨어 있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체포되기 직전에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데리고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막 14:34).

예수님의 절절한 당부도 소용없었다.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막 14:37).

제자들은 마음이 깨어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해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 VS 슬기로운 처녀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전반부(1~13절)에서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도 처녀들이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모두 졸다가 잠들어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히에



히에로니무스 프란켄 2세가 그린 ‘열 처녀 비유’ (161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로니무스 프란켄 2세의 ‘열 처녀 비유’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 명은 어리석었고 다섯 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마 25:1~5).

프란켄 2세는 바로 이 장면을 포착했다. 그림 왼쪽을 보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상세하다. 그들은 신랑을 영접하는 경건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신부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망각했다. 탄짓에 열이 빠져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 포도주 마시느라 정신없는 여인, 아예 술에 취해 뒹굴어있는 여인도 있다. 발밑에는 술병과 깨진 잔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주사위와 카드, 무도회에서 썼을 가면도 나뒹굴고 있다. 그들의 위쪽에 걸린 벽화에는 별거벗은 여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림 왼쪽에 등장하는 개릭터들과 소품은 일관되게 본분을 잊고 무절제와 방탕으로 흥청망청하는 어리석은 여인들을 상징한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은 왼쪽의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복장은 단정하고 검소하다. 오른쪽 벽에는 수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있다. 한 여인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과 십자가상이 있다. 맨 오른쪽 여인은 무릎에 성경책을 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가운데 있는 여인은 정성스레 등잔에 기름을 채운다. 또 한 여인은 차분

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고, 그 뒤쪽의 여인은 보석함을 열고 있다. 아마도 이 처녀는 그녀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할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테이블 아래에는 기름을 넣어 불을 붙인 등잔이 놓여있다. 특이한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것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아마도 화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反面教師)의 교훈으로 삼고 싶었던 모양이다.

생명도, 성령도 자기 것을 준비해야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마 25:6).

그림 정중앙에 현악기를 켜고 있는 여인의 뒤쪽에 신랑 일행이 올 숲속의 길이 묘사되어 있다. 열 처녀 모두 일어나서 제각기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러나 본질을 망각하고 흥청망청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진 줄 모르고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마 25:8).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호했다.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그림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마 25:9).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기름은 사

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도 되고, 불을 붙여 빛이 나게 하는 연료도 된다.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아마도 사람의 생명도, 성령도 자기 자신의 것을 준비해야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 아닐까? 아무런 생각 없이 대충 살면서 제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이제 혼인 잔치가 열릴 집의 문이 굳게 닫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마 25:11).

그림 중앙 맨 위, 저 멀리 원경(遠景)에 이 장면을 담았다. 잔칫집의 문이 이미 닫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잔칫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한다. 오른쪽에 입성에 성공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만세를 부르며 있다.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왼쪽 닫힌 문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히에로니무스 프란켄 2세는 단 한 장의 그림에 마태복음 25장 전반부를 충실하게 그렸다.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켜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새신랑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특히 마음이 깨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마 25:13).

온누리가 간다!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구호를 다녀와서

“아직도 299,700명 남았다”

우리팀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현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후원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셨다. 함께 동역해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지켜준 형제자매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팀 첫 사역은 폴란드 국경 지역인 자모시치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 방문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구호 물품과 여름 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학용품을 구매하는 일을 도왔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사는 것과 과연 아이들 몇 명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했다. 또 난민캠프에서의 어린이사역을 준비하면서 언어의 부족, 팀의 사역 준비 부족 등을 걱정했

다. 무기력한 마음과 후회,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묶여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떠올리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 지식과 작은 경험으로 사역의 가능성을 가늠하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을 앞세웠던 모습을 부끄럽게 하셨다. 우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 큰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직접 일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 부족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그 놀랍고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난민캠프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춤추고 뛰놀며 천국은 마치 이런 모습일까 상상했다. 잠시나마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긴급구호 마지막 날 캠프에서 만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를 배웅 나왔던 한 아이가 “지금 동그랗게 모여서 뭐한 거야?”라고 물었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어”라고 대답했더니 그 아이가 나를 껴안고 통곡했다. 내가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4년 동안 러시아어를 배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는 순간을 기뻐하셨다. 벌써 이 아이들의 삶에 임재해 계셨다. 폴란드에 머무는 난민 어린이가 3십만 명이나 된다. 우리가 만난 어린이는 300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299,700명이 남았다. 우리가 다 함께 무겁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김애니 자매 (W공동체)

“어서 평안이 임하기를”

긴급구호팀의 첫 사역지는 폴란드 국경지대 근처 ‘자모시치’라는 도시였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곳에는 난민들이 꽤 있었는데 긴급구호팀이 방문했을 때는 제3국으로 흩어지거나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난민들이 많지 않았다. 한 목사님이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내부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다.

우리는 자모시치에서 2시간가량 이동해서 푸세미시우 지역에 있는 테스코 난민센터도 방문했다. 난민들이 쉬어가는 센터가 있는 것이 감사했다. 하지만 사생활도, 남녀구분

도 없이 지내야 하고, 임시로 마련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시설과 위생이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 난민센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메디카 지역은 폴란드 남동부 국경지대로 전쟁 직후 난민들이 쏟아져 나온 곳이다.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팀은 바르샤바 지역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나마 전쟁에 관한 생각을 잊고 마음껏 뛰어놀았다. 게임도 하고,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소통의 장벽이 무색할 만큼 신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조금 달랐다. 전쟁을 겪고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아픔,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그 이상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몇몇 팀원들과 함께 엄마들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줬다.

난민들이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특히 한인 교회 성도들이 난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많은 난

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3국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슬픔이 크지만, 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배은지 자매 (W공동체)

“충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폴란드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팀이 간 곳은 처음 들어본 ‘몰도바’라는 나라였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이었는데 긴급구호팀에 합류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손길로 메말라 가는 땅에 새 생명이 움트도록 일하고 계셨다.

긴급구호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출국까지 2주 남짓 시간이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긴급함이 많이 체감되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 출국 전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팀 모임과 사역에 집중했다. 준비 과정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선교와 사역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힘썼다. 긴급구호팀원들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

몰도바에 도착했을 때 전쟁의 혼란함을 예상했는데 평화로웠다. 우리팀은 주로 어린이 사역을 담당했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이 우리를 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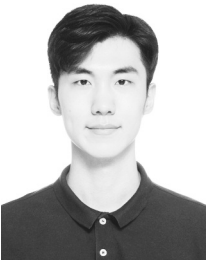
우리가 섬긴 어린이사역이 큰 도전을 줬다. 단순한 동정심으로는 아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먼저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아이들이 비로소 낮은 존재를 향한 경계심을 풀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같

은 수준으로 낮아져야만 비로소 어울릴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셨듯이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실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몰도바에 가기 전에 나는 큰 착각을 했었다. 우리의 동정심이 섬김의 동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전히 나는 다른 이를 섬기는 일을 갖춰진 상황과 조건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책임을 지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생각조차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지체를 향한 믿음을 불어 넣으

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품을 실제로 갖추도록 인도하셨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 더욱 성숙하고, 더욱 비범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은호 형제 (HUB대학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제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고,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슬럼프가 존재한다. 슬럼프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탐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만다.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열심히 그리고 올곧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 세상의 유혹과 신앙의 회의감이 들면서 흔들릴 수 있다. 그 흔들림이 균열을 만들고, 균열이 슬럼프로 이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헤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흔들림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결심해야 한다. 비록 내가 흔들리고 무너졌을지라도,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지의 집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염치없고 면목 없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눅 15:20)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뛰쳐나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모든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핀다. 그러나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다. 조금은 멀어져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는 것이다. 우리의

줄기를 조금씩 곧게

세워 하나님 앞에 나

아가 아름답게 피어

나는 예쁜 꽃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오현교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조금은 흔들려도, 멀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자. 이 비유에서 성경은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머지않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나무 열매마저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아버

맞이했다. 신앙의 슬럼프로 인해 잠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아직 멀리 있어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것이다.

바라기는 성경 속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지 않았을 때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나’에서 ‘우리’,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결혼은 ‘나’에서 ‘우리’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이 결혼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산다. 생활방식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분명한 믿음 위에서 결혼 전과 후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롬 12:2). 예전처럼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를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 중심의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가 있다. 반대로 너무 이기적인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 혼자 살던 버릇이 결혼 생활에서 자주 나타날수록 배우자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불평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은 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행동이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를 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선이해가 있으면 관계에 도움이 되겠다.

결혼 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누구의 간섭을 받기보다 스스로 삶을 관리한다.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삶을

산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자신의 결정이 곧 부부의 결정이 되고, 가족의 결정이 된다. 따라서 혼자서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통보하는 식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함께라는 의식을 가져야 결혼 생활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재정 사용에서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는 삶이 다소 외롭지만, 자유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부부라면, 혼자 살면서 누리는 자유로움을 결혼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나 중심적 행동들이 부부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에서 혼자 사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오랜 시간 형성된 나 중심의 삶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살아가는 연습과 노력, 인식의 전

개 들리기도 하지만, 각자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고백이다.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상태가 결혼의 성숙단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너와 내가 함께라는 관점을 갖는 것을 통해서 부부의 건강성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흡수되는 존재가 아니다. 배우자도 나에게 흡수되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의 색깔과 개성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성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건강한 부부다. 일평생 한쪽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중년 혹은 노년에 나의 삶이 없었다고 원망과 후회를 한다면 ‘너와 내가 함께’라는 단계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배우자의 삶도 돌아보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부부다(마 22:37-39, 엡 2:10).

결혼은 ‘나’에서 ‘우리’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배우자의 삶도 돌아보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부부다

자유와 행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결혼 이후에는 우리 중심이다.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가족의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픔이 느껴진다면 배우자와 가족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영역의 확대를 관심과 사랑,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기혼자가 배우자에게 묻지 않고 혼자 큰 재정을 지출한다면 여전히 나 중심의 생활에 머무는 것이다. 배우자와 상의 없이 주말 만남을 정하거나 동료들과 시간 보낼 약속을 하는 것도 나 중심 삶의 패턴에 머물러 있

는 것이다. 상대방의 자기애적인 모습을 보면서 비난만 하거나 분노만 표출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는 배려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대화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방법으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뀐 부부라면 ‘너와 내가 함께’라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난 당신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이 때로는 로맨틱하

나눔: 최근 느꼈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였는가?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고 부부가 함께 나눠보자. 부부가 함께 하는 방안도 나눠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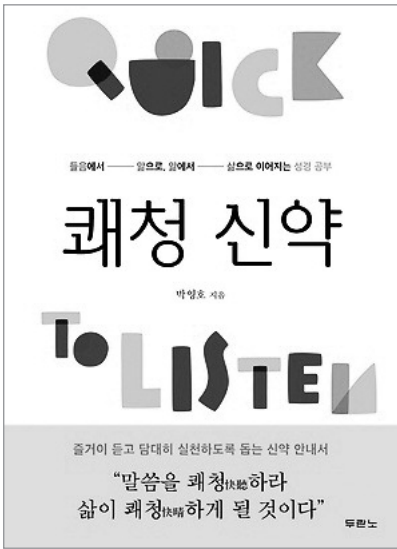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진짜 잘 들리는 말씀!



〈쾌청 신약〉
박영호 저 | 두란 | 13,000원

탁월한 전문가가 성지순례를 인솔한다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박영호는 ‘역대급 전문가’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신약성서를 ‘복음’으로 관통하고 빼어나게 안내한다. 왜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과거가 낱알이 기록되었는지, 요한복음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도마복음이 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읽다 보면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

이 책은 평범하지 않다. 저자는 전문적인 신학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안겨준다.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한 관점이 성경을 더욱 폭넓고 분명하게 보게 만든다. 권위 있는 신학 배경 지식을 저자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에 독자에게는 성경을 보는 ‘믿을 만한 프레임’이 형성된다. 이 책은 기존의 관념을 뒤집기도 한다. 선

입견을 걷어내야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으로 구분하거나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규정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말씀의 깊이에서 더 빠져들게 된다.

책의 내용은 전문적이나 저자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어느 모임에서 저자를 만난 적이 있다. 저자는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늘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이 본문에서 평신도가 질문한다면 무엇을 질문할까?”

저자의 전작(前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에클레시아〉, 〈빌립보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신학과 인문학에 정통하

고 학식이 풍부하지만, 늘 관심을 두는 지점이 ‘성도의 눈높이’이기에 쉬운 언어로 기록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깊은 신학적 깨달음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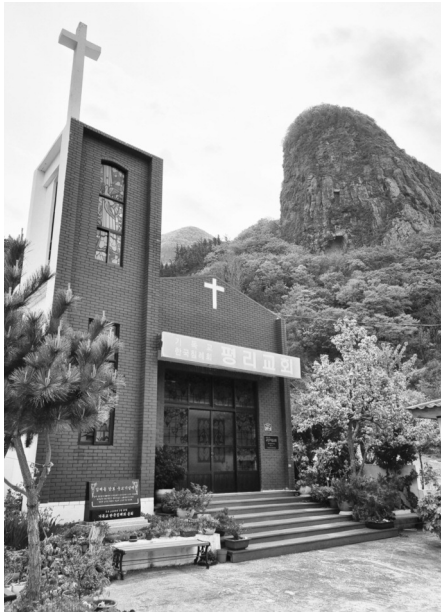
책의 제목에 나타나듯이 저자는 ‘쾌청’(듣기를 속히 하기)을 위해 ‘잘 들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도에게도, 처음 접하는 성도에게도 도움이 되는 귀한 책이 출간되어 기쁘다. 탁월한 안내자인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지식적으로도 선명해지고, 실천적으로도 분명하게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강현
(양재A공동체)

목사와 떠나는 선교 여행 울릉도 ‘평리교회’

오래된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평리교회는 울릉도에서 만난 두 번째 교회다. 평리교회로 가는 길은 ‘울릉천국’과 동일하다. 울릉도의 유명 관광지가 된 ‘울릉천국’의 입구가 평리교회라고 하면 될 것이다. 울릉천국은 가수 이장희 씨가 우연히 울릉도에 들렀다가 이곳이 마음에 들어 땅을 사고 밭을 일구며 정원을 가꾼 것으로 시작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협력해서 아트센터와 짓고, 소전시장과 카페 등이 있다. 울릉도의 명소로 자리 잡는 중이다. 울릉천국의 첫 집인 이장희 씨 집이 평리교회 뒤편에 있다. 그리고 울릉천국 아트센터가 있고, 그 앞에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다. 자연스레 평리교회는 울릉천국의 입구가 된다.

평리교회를 소개하려면 석포교회를 먼저 언급해야 한다. 석포교회의 설립자 최인회 감로의

순회전도로 평리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인회 감로가 평리의 강덕삼을 전도해서 그 가정에서 여러 명이 모여 예배드리면서 탄생한 교회가 평리교회다. 그때가 1910년 10월 20일이다. 이후 최인회 감로는 석포를 떠나 평리로 이주했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았다. 1933년 14평 목조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어엿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박해는 울릉도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예배당이 철거당하고 교회는 해산되었다. 1942년 9월 교회를 섬기는 김해용 감로가 신사참배 거부로 총회지도자들과 함께 원산형무소에 투옥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해용 감로는 8개월 동안 형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석방 이후에도 구타와 옥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겨우 보내다 1947년 8월 13일 평리에서 생을 마쳤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총회는 김해용 감로를 순교자로 명명하고 2009년 순교기념비를 교회 입구에 세워두었다.

박해 때문에 교회는 숨소리를 감추며 살아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해방되자 다시 한 가정집에 모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역사를 이어나갔다. 이때 성도들은 설립자와 순교자의 가족, 자녀들이 중심이었다. 1946년 목조로 된 초가를 매입해서 수리해 예배 처소로 삼았다. 1948년 목조건물에 너와로 지붕을 한 예배당을 준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물산의 풍부함을 자랑하는 평리지역의 호황은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때 200여 명의 성도와 주일학교는 물론

이고, 청년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였다. 무엇보다 20명 넘는 목회자를 배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그 이름이 나던 때가 있었다.

지금 평리교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과 토지를 그대로 이어가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고령의 성도들만 남아있는 듯하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쩌면 쓸쓸함만 있는 듯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그냥 스치듯 살펴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연로한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평온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좇아 성숙한 삶을 살도록 목회적 돌봄을 감당하는 김형갑 목사님 내외분의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 예배당 입구에서 만나는 정돈되고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을 보았고, 오래된 창을 열고 들어가 만나는 예배당의 자들이 가지런히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열만큼의 수고와 애씀이 살아 숨 쉬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오래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놓은 열심과 수고를 마주한다. 은혜를 맛보고, 오늘의 내 일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내가 계속 오래된 교회를 찾는 이유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기독 OTT ‘퐁당’ 프로그램 추천

이 시대 청년들의 진짜 속 이야기



〈터너라운드 텐트〉

“요즘 청년들이 예전같지 않다.”

진짜 요즘 청년들이 예전 같지 않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전이 더 중요할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속 이야기다.

‘터너라운드 텐트’에서는 황방울, 간미연 부부와 박성민 목사(청년선교)가 신앙의 터너라운드를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청년들의 생생한 고민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찾고 있는데 왜 나는 자유롭지 않은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이 더 편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민도 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나? 나만 이상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까?



네팔 김영미 선교사가 드림온플러스를 들고 웃고있다.

“선교지에 드림온플러스 선물하세요”

2022 드림온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CGNTV가 선교지에 드림온플러스를 선물하는 프로젝트 ‘2022 드림온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6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전 세계 선교사에게 CGNTV 셋톱박스인 ‘드림온플러스’를 전달한다. 드림온플러스 수신기는 1대당 15만 원이

다.

드림온플러스는 안테나 허가가 필요한 국가, 오랜 시간 위성 안테나 사용으로 인한 부식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드림온플러스는 한국 CGNTV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문대 CGNTV 채널도 제공해서 위성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끊김 현상 없이 HD 화질의 생생한 화면으로 CGNTV를 시청할 수 있다.

계좌: 573-910010-05904(하나은행, 예금주: 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홍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7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6330-7634

알콩달콩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는 부부의 ‘하나 됨’을 위해 건강한 떠남, 성경적 가치관, 부부의 성에 대하여 배우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플당 60만 원(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회비 포함).

문의: 02-2182-9110

하랑 다문화가족 초청 수련회

포천하랑센터, 온누리교회 봉사자 등 120명 참가

사회선교부 다문화지역팀에서 ‘하랑 다문화가족 초청 수련회’를 지난 6월 11일(토)과 12일(주일) 양주 휴리조트에서 개최했다. 포천하랑센터, 하랑한국어교실, 어울림합창단 다문화가족, 강촌공동체, 요셉공동체 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하랑 다문화가족 초청 수련회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캠프파이어, 예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코로나19

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예배와 기도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의 정체성 회복을 도왔다. 특히 강촌공동체가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및 신앙양육을 돕기로 해 더욱 뜻깊었다.

심길섭 장로(강촌공동체, 다문화지역팀 대표장로)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모처럼의 야외활동을 너무 즐거워해서 감동이었다”면서 “전문사역자, 상담사, 봉사자들이 다문화지역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

온누리 소속, 아마추어합창단 6월 30일까지 신청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합창단(찬양사역팀제외)이나 온누리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합창단은 6월 30일

까지 합창단 이름, 인원, 단장 연락처 등을 적어서 문자메시지(010-6270-2327)로 신청하면 된다.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는 12월 3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6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6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

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제8회 장로아카데미 종강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43명 수료

제8회 장로아카데미가 종강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 장로아카데미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안교성 교수 ‘한국 교회사와 장로교회’, 이장로 장로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이재규 교수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 이인용 장로 ‘관계-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남식 장로 ‘사회환경과 문화 변화’, 한성열 교수 ‘예수님은 상담자’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영성수련회 등이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장로 43명이 수료했다.

지난 6월 14일 제8회 장로아카데미 종강예배 및 수료식이 온라인(Zoom)으로 개최됐다. 박종길 목사의 설교, 학사보고 및 수료식, 수료 간증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장로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정운섭 장로(장로아카데미 대표장로)는 “장로아카데미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장로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는 장로님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익환 장로(양천공동체)는 “장로아카데미에 참가한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또 한 번 비상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고, 김준용 장로(영등포구로공동체)는 “장로아카데미는 장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재충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연애, 결혼 세미나 ‘나, 그리고 우리’

6월 11일과 18일 신촌역 히브루스 카페

S브릿지공동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연애, 결혼 세미나 ‘나, 그리고 우리’를 개최한다. 6월 11일과 18일 오후 4시 신촌역 히브루스 카페에서 진행된다. ‘가족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기, 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기’, ‘건강한 사랑과 관계를 위

한 인성, 영성, 사회성 키우기’를 주제로 김숙경 소장(사랑연구소,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강사)이 강의한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로 소속 공동체, 이름, 사전 질문 등을 보내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2845-3206

온누리 입양가족 한자리에

제이홈, 입양위탁 세미나 개최

온누리교회 입양위탁지역팀 제이홈에서 지난 6월 11일(토) 입양위탁 세미나를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했다. 제이홈 소속 입양가족과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홈 입양위탁 세미나는 임정열 장로의 기도, 신길섭 목사의 말씀, 고아 돌봄 사역 소개, 입양위탁 가정 나눔 및 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정열 장로(제이홈 담당장로)는 “입양과 위탁, 선한울타리사역(보호종료아동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성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는 “온누리 입양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7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

선교를 이해하고 배우는 ‘갈렙선교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청하고, 그다음 주에 조별모임을 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관리’, ‘미션헬퍼십’, ‘이주민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를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7월 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OSOM(장기선교사) 수료 간증



/ 서병원 수료생(OSOM 32기)

준비과정부터 훈련이었다. 훈련 전 제주도에서 3개월 동안 가졌던 휴식은 안식과 누림의 시간이면서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다. 잠시 찾아왔던 임신의 기쁨이 유산되면서 아픔으로 바뀌었다. 의사도, 우리 부부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또 다시 찾아온 임신의 기쁨이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유산으로 또 아픔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며 OSOM 훈련을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었다. 다섯 번의 유산은 다섯 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 아이들을 훨씬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우리 가정은 더욱 하나 되었다.

OSOM 훈련에서 배운 것을 배움으로 끝내면 안 된다.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사요, 동원가”라는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한국 선교 40년을 통해 남겨진 것은 황폐해진 선교지뿐”이라는 1세대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했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 동역자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것,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성육신적인 태도로 섬길 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겼다.

OSOM 훈련은 정말 행복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눈물로 섬겨주신 황종연 목사님, 이준욱 팀장님, 코디님, 스태프분들,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평생의 동역자인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와줘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정권이에게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

라이프 가드 봉사자 간증



/ 이용준 형제(허브대학부)

‘라이프 가드(Life Guard)’는 인명구조요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의 의미를 본떠서 대학부 청년들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운동 ‘라이프 가드’ 활동을 하고 있다. 베이비박스 미혼모와 영아를 돌보고 섬기는 팀, 안산M센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섬기는 팀,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아름다운피켓’(NGO 프로라이프 단체)의 활동을 돕는 팀,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운노인복지센터 봉사팀이 있다. 나는 청운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섬긴다. 지체 20여 명과 함께 하고 있다. 청운노인복지센터에는 치매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약 100여 명 정도 계신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운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조로 역할을 분담해서 약 3주 동안 준비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준비했다. 그 물품이 적절한지, 예산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졌다. 한정된 예산에서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물품을 선정하는 일이 어려웠다. 생활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간식을 준비할 때도 건강하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르기 위해 애썼다. 무엇보다 조원들이 어르신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줬다. 그 덕분에 큰 고비 없이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프로그램과 물품들을 구매해서 청운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께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센터에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의 아쉬움을 청운노인복지센터 팀장님이 달래주셨다. 팀장님이 우리가 전달한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고, 어르신들이 생활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나도 그 사진을 보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청운노인복지센터 사역이 재개되고,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섬김이 청운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이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박귀환 목사(생명샘동전교회)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쉬지 않는 온누리교회 전도학교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보면 거절할 수 없는 사역이 전도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듯, 전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전도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목사인 나도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 생명샘동전교회 성도들도 전도지를 나누는 정도지 전도의 도구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우리 교회에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았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전도지를 전달했지만, 온누리전도학교의 5분 전도 같은 병기(兵器)가 없었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는 과거 <사영리> 전도지를 넘어서는 확실한 전도교재다. 교재와 저자의 강의를 듣고 나누고 실천하면서 완전무장할 수 있었다.

3개월 동안 온누리전도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조장님의 생생한 간증과 실제적인 사례를 설교에 많이 인용했다. 강대상에서 “최고의 복음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체득되는 과정이었다.

전도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여러 가지 전도세미나와 집회를 했지만, 왕도(王道)가 없었다. 온누리전도학교의 전도는 달랐다. 전도 방법을 융합해서 집대성한 완결판에 가까웠다. 정말 놀라고 감사했다. 장경문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샘동전교회 70인의 전도팀이 무기를 하나씩 갖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접근하게 되었다. 전도할 때마다 부딪치는 반대 질문에 실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명샘동전교회 전도팀들의 영·혼·육이 독수리처럼 비상할 줄 믿는다. 온누리전도학교 모든 분께 감사하다. 빛진 자의 심정이 되어 중부지역에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어느 이주민의 간증



/ 쏘타니 형제(페르시아어예배)

내가 돌봄 받았듯이, 이주민들을 섬기고 싶다

청년 시절, 나의 고향인 이란에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유를 찾아 이란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우연히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덧 20여 년이 훌쩍 넘었다. 2000년 9월 한국에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알음알음 알게 된 이란인들과 함께 지냈는데 강변역에 있는 교회에서 마련해주 셴터가 큰 도움이 됐다.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교회 쉼터에서 지냈지만, 사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랍인들은 이슬람이 가장 완벽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자기기가 좋은 것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이슬람이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한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유대교의 경전 <토라>와 99% 같고, 한끝만 다를 뿐이라 여겼다. 나 또한 종교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다. 어느 동네든지 교회를 찾아가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교회의 돌봄을 받으며 ‘기독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주민들을 도울까?’ 궁금했다. 2001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이란예배에 참석했다. 그때 이란어로 된 성경책을 처음 받았다.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갔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에게 ‘나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친구들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몰라. 그냥 받아야 할 것 같아’라는 대답 말고는 해줄 말이 없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할 수 있었다.

몇 달 전 남양주M센터에서 아프간특별기여자 몇 가정이 남양주에서 생활하는데 초등학교에서 통역을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 마침 시간이 맞아서 초등학교에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았듯이, 다른 이주민들을 섬기고 싶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장로칼럼

아웃리치 최우선 고려사항은
선교사님을 위한 배려오명 장로
(충청로공동체)

모처럼 아웃리치를 준비해서 그런지 교회에 생기가 가득하다. 10여 년 전 나의 첫 번째 아웃리치가 생각난다. 당시에는 직장의 업무로 인해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아웃리치를 갈 수 없었다. 내가 갈 수는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물심양면 아웃리치를 지원했었다. 그랬더니 공동체에서 나에게 선교사역자라는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래도 선교사역자가 아웃리치를 계속 안 갈 수는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업무에 여유가 생겨서(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여할 수 있었다.

충청로공동체는 20여년 동안 미얀마 인레호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인타족을 섬기고 있다. 인타족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종족 중 하나이다. 인타족은 거미줄처럼 뻗은 강가에서 수상가옥 생활을 하는 소수민족이다. 인레호 지역의 현지 목회자와 연결되어서 1999년 정탐과 땅밟기를 시작했다. 2000년에 본격적인 아웃리치를 시작하면서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아웃리치를 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경화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주민의 병이 낫게 되고 심장병 환자의 수술을 도우면서 완고했던 불교 마을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계속 아웃리치가 이어졌고 그 열매로 인레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 주님을 영접한 인타족 세례교인이 16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공동체 선교사역자와 총무로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이끌었던 내가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괴롭혔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공동체 아웃리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그 기대가 점차 커졌다. 성도님들이 아웃리치 가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숙소, 식사, 동선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었다. 마치 예배 큐시트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아웃리치를 위해 선교사님들께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다. 공동체의 기대가 커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무리수를 두는 사역을 준비하거나 성도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관광가이드 역할까지 감당하시곤 하셨다.

아웃리치 팀원들이 많아지면서 사역을 위한 일회성 사역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돌과 마대를 싣아 마을진입로를 놓아 준 적이 있었지만 다음해에 가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고 말았다. 초롱초롱한 선교지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지 못해서 선물 공세도 했다. 현지인들은 한국인 선교사님만 보면 선물을 기대하는 눈치라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도 나중에 알았다. 선물을 준비할 때도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준비해야 하고 전달 방법도 고민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필요도 있다.

아웃리치 최우선 고려사항은 선교사다. 아웃리치 일정 점검을 선교사님께 무리하게 부탁하지 말고 선발대를 보내서 준비하면 어떨까. 여건이 되는 팀원이 사전에 답사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일찍 가서 아웃리치 일정에 맞게 돌아보면 된다. 성도님들도 일정이 꼬이고 식사가 입맛이 맞지 않아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하다. 아웃리치 일정이 끝나면 선교사님을 모시고 평소애 업무를 못 내던 관광 지나 좋은 식당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자. 성도들이 은혜받고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고려할 것은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배려해 드려야 함을 잊지 않는 아웃리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주께 소망을 둔 여인은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내는 남편의 보조자로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연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남편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남편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제사장이 되려면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성의 주요 역할은 남편이 가정의 가장과 제사장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역할을 부여받은 아름답고 존귀한 여성으로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한 여성의 태도다.

남편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소망을 두는 대상은 아니다.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성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사리를 가리켜 ‘주께 소망을 둔 여인’이라고 칭찬했다. 어머니학교에서 이것을 깨달은 아내들이 오후 예식 시간에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아내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다.

회개의 기도도 올려드린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남편과 세상을 다 안다고 한 교만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통곡하며 기도한다. 아내 마음대로 남편을 조종하려고 했던 잘못도 고백한다. 돕는 배필이 기보다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고, 조종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무능력하다고 다그치는 ‘바라는 배필’이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세 번째 올려드리는 기도는 가장으로서 또 한 제사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남편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이 사추기(思秋期)를 지나고 있는 남편의 외로움과 사춘기 자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위로하시기를 기도한다. 남편이 사추기를 잘 극복하고, 자녀들과의 갈등을 잘 풀어서 건강한 장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가 ‘가장으로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이다. 그래서 남편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심정을 잘 이해하고 품고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남편이 혼자 외로운 길을 가게 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도 한다. 그것이 바로 남편을 위한 중보기도이자 남편과의 동역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적 상황을 위해 기도한다. 사추기의 남편들이 방향을 겪기도 한다. 영적인 혼돈이다. 그래서 남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타게 기도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기도한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정확히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용기 있는 아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헌신이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자 동기부여이다.

신앙에세이

하나님의 인정,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우리는 인정 욕구의 늪에 빠져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정, 학교, 회사에서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미국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A. H. 매슬로우는 욕구위계이론에서 인간은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며,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채우고자 노력하는 존재라고 했다. 매슬로우는 인정 욕구와 자기존중 욕구를 상위 단계의 욕구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인정 욕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정 욕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정은 곧 성공과 부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만 내가 한 모든 것이 잘된 거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만 성공했다고 결론 내는 현상은 지극히 세속적이며 비성경적이다. 인정 욕구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조차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열심을 낸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무능력함

과 영적 탈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에 우리가 있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모든 평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다. 평가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을 향한 복음전파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평가는 주님이 하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갈 1:10).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역과 헌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대로 아무도 나의 헌신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면 그 헌신은 가장 값지고 아름답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정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훗날 심판의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 무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훗날 있을 하나님의 평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마 25:23).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저의 대학 동아리 후배가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꿈을 쫓는데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마침 천사가 자리를 비워서 불펜을 꺼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적으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야단맞고 꿈에서 깬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가 그 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실제로 느끼고, 생명책 앞에 서서 떠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적 탄생에서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선한 열매를 쌓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참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계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소유한 계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12절).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대등한 역할을 하도록 주신 계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기에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

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고대 페르시아 시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역사와 운명을 판단했던 사람들에게는 별의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준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모르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시험 범위를 알려 주셨는데, 그 범위 밖에서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입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정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계시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본성, 양심의 소리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양심과 도덕적인 본성에 새겨주신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기에 공정하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기에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에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대로 심판하시기에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통념,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 영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 덧입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의 정당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더 깊이, 절실히, 간절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백혁 관장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사 46:4).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는 2019년 9월부터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신중년(5070세대)을 위한 문화 여가 복합시설이다. 새로운 형태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다.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차별화한 신중년 중심의 문화 여가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 권역 4곳(내곡, 서초, 양재, 방배)에 신중년을 위한 문화 여가 복합시설이 있는데, 온누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내곡을 중심으로

서초, 양재 느티나무쉼터이다.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에서는 신중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해서 ‘스마트시니어IT사업’, ‘놀봄카페(2, 4호점)’, ‘느티나무베이커리’ 등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신중년들이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한다.

스마트시니어IT사업은 정보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시니어IT체험존(인공지능 로봇체험, VR 체험, 1인방송체험), 스마트정보화교육(키오스크 실습, 로봇과 함께하는 두뇌 발달교실, VR스포츠, 코딩수업, IoT하우스 등), 스마트폰서포터즈, SSN(서초시니어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SSN(Secho Senior NT-network, 서초시니어네트워크)에 참여해서 4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고영희 1기 아나운서는 유튜브 채널 ‘서초할마할빠이야기’에서 ‘고영희의 힐

링타임’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를 직접 섭외하고, 인터뷰와 진행까지 한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김혜영 서포터즈는 느티나무쉼터에서 직접 만든 스마트폰 교육 교재 기초편과 활용편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앱 활용법 등을 알려 주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고 매우 기뻐하신다.

지난해 〈서초구 소식〉10월호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공간 메타버스에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를 조성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KT IT서포터즈’와의 연계하고,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서 앱 설치부터 실제 아바타 만들기, 가상공간에서의 느티나무쉼터 돌아다니기 체험 등의 메타버스 교육을 4회 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사명은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이

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모든 구성원이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시 29:1).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보고, 베풀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신중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배우고, 그 배움을 또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작은 것부터 나누면 진정한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주위를 둘러보고, 행하기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문의: 02-6953-7133, 7134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철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8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뵘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에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6월 개강)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큐티스쿨-서빙고 일시: 7월 3일~8월 13일 장소: 온라인(매 주일 강의 링크 공지) 신청: 아이스쿨(7월 2일까지) 문의: 010-3766-9881(문자) 내적치유학교 일정: 7월 22일~30일 매주 금, 토 시간: 오후 3시~9시 장소: 온라인 신청: 아이스쿨 회비: 6만 원 문의: 010-6330-7634 양 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러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임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담당: 박사무엘 목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업무: 선교지 행정지원(중동/아프리카 지역) 1명 지역: 양지Acts29비전빌리지 3층(숙 소 협의가능) 지원: 6월 24일까지 문의: 070-4464-810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부 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 3부 오후 2:00 / 4부 (대학청년) 오후 4:00 / 5부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기쁨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오전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 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 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 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 (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 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방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 홀 / 유년부 9:00 2층 꿈방홀 / 초등부 11:30 2층 꿈방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방홀 / 중등 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의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오전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의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야심야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 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illegible]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요리 레시피까지,
푸드 라이브쇼 <태초밥상>이 시작됩니다!

6월 22일(수) 오전 11시 50분 첫 방송

출연 이계호 교수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 가수 자두

* 유튜브 CGNTV 채널, '풍당' 앱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